

# 북한의 石油産業

鄭海石

〈平和統一研究所 연구위원〉

## 경제難의 심화

북한 경제실태는 흔히 최악의 상태로 표현되는 용어로 평가·진단되고 있다. 경제파탄, 경제파산, 침체 국면의 심화 등의 표현이 그렇다.

이같은 경제위기의 원인도 알고보면 에너지難에 근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게 된다. 북한의 에너지難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만성화된 국면에서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가 산업의 동맥을 관통하는 혈액이 되지 못할 때 산업을 빈사 상태로 만들어 결국 전산업을 마비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산업의 총아가 석유산업이요 복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석유나무라면 북한에는 석유나무가 그동안 가꾸어 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고작 재래식 방법으로 에너지難을 극복하려 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해결방법이 될 수 있겠는가.

오랫동안 북한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3大難의 극복이다. 김일성과 노동당은 기회있을 때마다 이 3大難을 원만하게 풀지 못하고서는 경제의 自立的 토대도 마련할 수 없고, 사회주의 건설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3大難은 바로 「食糧難」, 「에너지難」, 「輸送難」을 의미한다.

김일성은 「쌀은 곧 共產主義다. 쌀밥을 먹어야 사

회주의 혁명도 할 수 있고, 공산주의 사회도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아무리 현대무기로 장비된 군대가 100만이 넘게 있고 평양 한복판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105층의 호텔(골조만)이 있다고 자랑한다해도 잠곡밥에 하루 두끼먹기운동을 벌리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지상낙원이며 공산주의 이상 사회일수 있겠는가.

制限送電을 하고 집집마다 「한등켜기 운동」을 벌리고 있고, 공장마다 「節約鬭爭」을 벌이지 않고는 에너지難을 극복할 수 없는 오늘의 북한 사정은 차라리 전시 비상상태와 흡사하다는 것이 최근 방문자들의 수기에서 거의 지적되고 있는점이다. 오늘날 북한의 에너지難은 그동안 누적된 경제의 가장 큰 애로 부분이 되고 있으며 당면과제로서 풀어야할 핵심적 부문이다.

북한의 에너지難은 바로 輸送難을 병발시켜 생산과 건설에서 큰 차질을 빚게하고 있다. 원료가 제때에 공급이 되지 않으므로써 생산시설이 조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각종 건설에 대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보장되지 못한 관계로 일의 진척을 더디게 하고 있다.

이 3大難의 만성화, 심화는 북한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며 이의해결이 없으면 북한경제는 파탄될 수 밖에 없다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심각한 에너지難

북한의 에너지難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은 외신이나 북한 방문자의 기행문에서 단골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다.

북한은 최근 경제구호로 「增産과 節約」을 내세우고 이것을 「鬭爭」으로 선언하였다. 즉 「增産鬭爭」과 「節約鬭爭」이다. 이 절약투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문제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다.

방북 수행기나 증언에서 나타난 북한의 에너지難에 대한 내용을 몇가지 사례에서 찾아 보기로 한다.

일본의 NHK 기사는 판문점을 취재하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야간열차에서 차창가에 스치고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너무나 쓸쓸하게 표현하고 있다. 초저녁인데도 도시에는 전등불이 켜있지 않고 가로등 불빛은 더더욱 볼 수 없었다. 역사의 희미한 백열등 빛이 고작 야간열차가 한도시를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신호였을 정도였다고 한다. 어슴프레 철로변의 공터에 서넛의 아이들이 느린 열차의 바퀴소리를 무심히 듣고 있을 정도로 적막한 밤이 시작되고 있다고 쓰고 있다. 개성에서 평양까지 오는 철도여행에서 그 화려한 도시는 없고 모두 불이꺼진 적막만이 흐르고 있었을 뿐이다.

북한은 공장도 주택도 모두 제한송전을 하고 있다. 주택은 일몰후에 전기가 돌아오고 10시경이면 전기가 나간다고 한다. 그리고 새벽때 다시 전기가 들어온다. 그러나 아침 해가뜨면 전기가 나간다는 것이다. 심지어 평양의 호텔에서는 겨울날 7시에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전기가 나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번 IPU 총회에 참석했던 우리 국회대표단도 북한의 절전에 대해서 몇가지 사례를 들어 증언하고 있다. 큰 건물의 복도가 앞사람도 분간 못할 정도로 컴컴하였다는 것이다.

시골에서는 전기사정이 나빠, 언제 전기가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집집마다 초고지, 등잔, 카바이트등을 준비해 놓고 살더라는 것이다. 평양의 경우도 1주일에 아침, 저녁으로 평균 3~4회의 정전이 있고, 1회 정전시간은 대체로 30분정도였다는 증언도 있다. 개성에서는 매주 화요일을 「정기정전일」로 정해 놓고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은 교차생산방식을 채택, 순번제로 정전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 한·소 북한경제 전문가 세미나에서 소련의 한 북한 경제전문가는 북한은 에너지 사정 악화로 89년이후 공장 가동률이 40~5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석탄은 연간 3,000~4,000만톤이 부족하고 89년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은 300만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골길에 우마차가 많이 다니고 심지어 日帝말엽에나 있었던 목탄차가 굴러다니고 있더라는 연변의 보파리장사 아줌마의 증언이 생각난다.

심지어 공군에서는 에너지부족으로 훈련비행기마저 제대로 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휘발유부족으로 비행연습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안될 정도라는 것이다. 타스통신기자에 의하면 보도차량 휘발유 배급이 적어 취재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북한의 도로변이나 철로변의 산들이 모두 우리의 50년대처럼 벌거벗었다고 한다. 이유인즉 떨감이 없어 베어다 썼기 때문이라 한다. 최근 산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한 산수갑산, 혜산진을 다녀온 재미교포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산골에도 동네 가까운 산은 모두 헐벗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지역은 일제때도 있었던 가로수까지 잘라다 써버리고 말았을 정도라고 한다.

북한의 에너지난은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모두가 원유도입이 여의치 않은데서 생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원유는 바로 외화이기 때문에 외화벌이를 위해 산나물, 약초까지 따다 수출하는 처지에서 원유도입이 얼마나 어렵겠는가를 짐작케 한다.

## 중단된 석유탐사

한반도 연안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동해안과 황해가 중심축으로 되어 있고 분단으로 인해 남한만이 남해를 가지게 되었다.

석유개발과 관련해서 본다면, 북한은 우리와 같이 동서해안에서 다같이 석유생산의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서해안은 中國의 발해만과 연결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발해만에서는 유전이 개발되어 원유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질만 하다.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이미 1950년 대 말부터 석유탐사를 시도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정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바다 유전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시기가 아니었고, 기술도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유전개발에 대한 각종 문헌정보 등을 검토, 논의되기 시작한 때가 아니었던가 한다. 그리고 中國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그동안 북한의 석유탐사계획은 비밀리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외신보도나 귀순인사의 증언, 기타 정보에 의해 파악된 내용을 추려보면 대강 다음과 같다.

①7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시추선을 용선, 서해안의 대륙붕과 내륙지역에서 석유시추를 하였다. 당시 서해안은 中國의 발해만 석유생산 성공으로 자극되고 있었으며 우리도 발해만 구조와 비슷한 서해안 석유 시추에 관심을 크게 쏟고 있던 판이다.

북한은 1976년 8월, 서해안 남포근해의 죽도 남서방 22.5km 지점에 고정 플랫폼을 설치하여 석유시추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1979년 7월에는 서해안 죽도 서방 64.8km 지점에 싱가포르에서 용선한 에드나스타호 시추선이 석유시추를 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시기에 서해안 숙천군(평남) 해안 30km 지점에서 바지식 시추선이 석유시추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졌다. 그리고 숙천지방은 해안지대뿐 아니라 내륙에서도 석유시추가 행해졌던 사실도 알려졌다. 이와같이 서해안지대에서는 상당한 기대와 함께 석유시추가 행해졌으며 앞서 말한바와 같이 中國의 석유탐사와 우리의 서해안 석유탐사에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

1985년 1월 22일, 북한과 소련은 「조·소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동해안의 대륙붕자원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이후 대륙붕 개발에 대한 구

체적 발전은 없었고 더욱이 석유탐사에 관한 별다른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다.

1989년 8월 소련의 한 북한경제전문가는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서해안 석유탐사는 당초 유고와 협력, 진행하였으나 다시 노르웨이와 협력하여 탐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하였다. 이런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석유탐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석유탐사를 실시한 것 같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북한의 석유탐사에 대한 보도는 물론, 정보도 끊기게 되었으며, 북한의 경제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형편에서 아마도 석유탐사 사업을 일단 중단한 상태가 아닌가 짐작된다.

북한이 에너지難을 극복하지 못해 전전공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석유탐사는 계속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개발비용이 없든지 아니면, 시추자료분석 결과 가망이 없다고 판정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석유개발이 중단된 이유로서는 中國과 발해만 석유생산에 관한 모종의 분쟁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 精油施設과 에너지 수급

북한의 정유시설은 그 배치만 보아도 중·소로부터 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역역하다.

勝利化學工場은 소련과 가까운 함북나진시에 위치하고 있다. 1971년 이전까지는 웅기정유공장으로 불리워진 이 공장은 소련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될 정도로 소련 국경에 가까운 지역에 있다.

이 공장은 1960년 12월 「조·소 '61~'67년간 공업기업소 건설 및 확장을 위한 기술원조협정」 내용에 연간 원유 200만톤 처리능력의 원유가공공장 건설 사항을 포함시켜 추진한 것이다. 이 공장건설의 연혁만 보아도 북한의 석유산업이 전적으로 소련에 의존하고 있는 배경을 알게된다.

북한은 1961년 9월, 제1차 7개년계획에서 아오지 지역에 연간 원유 200만톤 처리능력의 원유가공기지를 건설하여 그 1단계로 67년까지 100만톤 처리능력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1966년 6월에 있는 「조·소 '68~'70년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협정」

에서는 위와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리고 1968년에 원유가공 공장 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1969년 2월에야 雄基에 원유가공공장을 착공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어 소련에서 옹기원유가공공장용 설비를 제작 착수하게 되었다. 이 공장 건설은 다시 1970년 6개년계획으로 이월되어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1971년에 승리화학공장으로 명명하게 되었으나 1972년에 원유탱크 조립이 소련기술자들에 의해 겨우 끝나고 1973년에는 최고인민회의 5기 2차 회의에서 73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것을 결의한바 있다.

공장시설로는 직경 45m, 22m, 10m 탱크의 3종, 140여개의 탱크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烽火化學工場은 평북 피현군 백마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바로 신의주 남동쪽 13km지점이다. 이 공장이 中國의 영향하에 놓여있다는 것은 위치에서나 공장 건설 연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백마정유로 시작되었던 이 공장은 中國의 지원하에 1976년에 봉화화학공장이 착공되고 1977년에 건설이 추진되었다. 1978년 9월에 1단계 공사가 완공되고 그후 계속 공사가 추진되어 현재는 원유정제 능력 150만톤의 북한 제2정유공장이다.

이 공장은 직경 40m, 35m, 25m, 20m짜리 원형 저장탱크 25개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정유공장은 모두 2개뿐이며 앞서 말한바와 같이 동북부의 승리화학은 소련의 지원하에 세워지고 소련의 원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북부의 봉화화학은 中國에 의하여 세워지고 中國의 원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중·소 감정이 대립된 시기에 북한이 어느 한편에 치우치면 다른 한쪽에서 송유관의 "콧"을 잠가버리는 그야말로 북한의 동맥혈액순환을 차단하는 극심한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북한이 아무리 「主體思想」, 「自力更生」하고 떠들어도 중·소에 송유관을 대고 있는 한 그들 속 사정은 남들이 알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정유처리능력은 두개의 공장 모두 350만톤(일산 7만배럴 정도)으로 우리의 원유처리 능력 109만 배럴의 1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같이 규모적은 원유처리시설을 더 늘릴래야 늘릴 수 있는

재정도 없으며 또 원유를 도입할 외화도 없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석탄이나 수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이다.

북한의 원유도입은 외화사정으로 여의치 못하여 1988년에 316만톤에서 1989년에는 260만톤으로 날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89년 당시 도입선 수량을 보면 소련에서 50만톤, 중국에서 114만톤, 이란에서 92만톤, 그리고 리비아에서 4만톤 등이다. 북한의 석유수요는 연간 500만톤 수준으로 정유시설도 부족하고 원유도입 자체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에너지難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대소·중경제협력 관계에서 전보다 나쁜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이들 나라로부터의 원유도입도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즉 북한은 1991년 4월 28일 평양에서 북한-소련 정부간 「91년도 무역 및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을 조인하였는바 내용중 중요한 것이 금년부터 쌍방간 무역 및 경제협조는 태환성 화폐(硬貨)와 국제가격에 기초한 결제와 지불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출입 상품 결정에서 북한의 대소수입중 원유를 비롯 석탄, 코크스탄등 에너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바는 없으나 북한과 中國간의 경제 협력도 中國에서 「91년도 조·중무역협정」이 이미 맺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격도 국제시장가격과 태환성 화폐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중에는 원유를 포함 휘발유, 윤활유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원유는 종전 100톤수준에서 60만정도로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추측된다.

북한과 中國·소련과의 무역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화결제와 국제시세의 적용이다.

中國이나 소련은 북한에 대해 다같이 무역을 구상 무역형태로 해왔기때문에 북한의 대금결제에서 상당한 편의를 보고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경화 즉 달러, 엔화, 프랑화, 마르크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결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외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종전까지는 국제시세가 아닌 「友好價格」을 적용해 왔는데 이것은 사회주의 형제국에 대한 특혜가 격으로 통상 국제시세의 3분1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혜를 없애고 국제시세로 적용한다면 북한 경제는 오히려 더 큰 격으로 숨을 쉴 수 없게 된다.

그나마도 소련이나 中國은 원유 물량부족으로 북한에 대해 증전보다 적게 배정하고 있어 나머지 물량 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의 연형목총회가 금년들어 1월 29일부터 2월 7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3국을 순방한 목적이 주로 원유, 식량, 원자재등 수입선을 다변화 해 보자는 것으로서 태국에서 쌀50만톤을 수입하기로 하고 원유도입도 교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대단히 악화되고 있다. 소문대로 북한이 중·소로부터 원유대금을 경화로, 국제시세로 결제를 강요 받는다면 북한 경제는 머지않아 파탄되고 말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적중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에너지難에서 허덕이고 있다.

## 에너지 산업실태와 애로의 극복

여기서 잠깐, 북한의 에너지 생산실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의 에너지부문은 석탄, 전력, 석유로 대변될 수 있다.

석탄부문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 북한의 석탄 생산능력은 4,330만톤으로 우리의 2,000만톤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된다. 그리고도 북한은 에너지를 「主炭從油」에 의존 탄광을 개건, 확장하여 생산량을 높이려하고 있는데 1990년 10월 노동당 창건 45주년 기념보고에서 김일성은 석탄생산량을 8,500만톤으로 발표, 실제생산량보다는 2배이상 과장 발표하고 있다.

전력생산도 1989년 현재 690.2만Kw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중 수력이 405.2만Kw, 화력이 285만Kw로 석탄·석유의 부족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은 이

북한의 에너지 생산량

	단 위	韓 國	北 韓
石 炭 生 産 量	千 噸	20,785	43,300
發 電 設 備 容 量	千 Kw	20,997	6,902
(水 力)	( " )	(2,339)	(4,052)
(火 力)	( " )	(11,043)	(2,850)
(原 子 力)	( " )	(7,616)	(-)
發 電 量	億Kwh	944.7	291.7
(水 力)	( " )	(45.6)	(149.5)
(火 力)	( " )	(425.5)	(142.2)
(原 子 力)	( " )	(473.7)	(-)
精 油 能 力	千BPSD	840	70
原 油 導 入 量	千 噸	40,437	2,600

같은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3차 7개년계획 기간중 소련 지원하에 원자력발전소(44만Kw급, 4기) 건설을 모색해왔으나 소련의 경제사정 악화, 북한의 내자동원 불능등의 이유로 계획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건설부지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부문은 정유능력이 연간 350만톤으로 수년동안 시설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빈약한 정유시설인데도 물량을 확보치 못해

1989년에는 260만 밖에 정유하지 못해 공장가동률도 74%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북한의 만성적 에너지難의 원인을 대체로 정리해 보면 ①석유의 도입이 어렵다. ②화력발전시설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나 저열탄을 사용하고 있어 제대로 전력생산을 못하고 있다. ③수력발전시설도 노후화되거나 구식이어서 전력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생산에 직결되어 ①공장가동

률이 떨어져 생산실적이 저조하며 ②교통, 운수분야에 파급 수송체계의 장애로 석탄공급, 원자재운반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장·기업소 가동률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③특히 석유화학공업의 부진은 현 3차 7개년계획의 주요과제로 되어 있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실림집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의 혈액과 같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의 애로가 산업전반을 빈혈화시켜 빈사상태에 있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전력공급에서 문제되는 것은 고압 전선의 지하배치(전시 대비)가 기술부족 때문에 50%나 되는 전력이 땅속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지적도 큰 문제인 것이다.

북한은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석유 산업을 발전시키고 특히 먹는것, 입는것 문제도 석유산업의 발전없이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은 에너지부문, 특히 석유공업부문에서는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석유산업분야의 협력은 원유공급선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구매하여 나누어 쓰고 대신 석탄등공업원료를 우리에게 주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정유시설도 우리의 기술적 지도로 확장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우리의 정유시설을 이용 황해, 평남지역의 석유는 송유관을 통해 공급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석유화학제품의 생산확장을 서두르고 있는 북한은 우리와 계열산업으로 연계시켜 덕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면 북한은 중·소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와 협력하고 동남아제국과 협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 해외석유정책 □

## 日本 원유정제쿼터 철폐

日本 통산성은 석유업계에 대한 원유처리(정제) 쿼터규제를 92년 3월 말에 철폐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同성은 석유제품이 공급과잉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2회 반년분의 원유처리쿼터를 작성하여 석유정제회사들에 할당하여 왔으나,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자유화하여 석유업계의 경쟁을 촉구하게 된다. 업계의 경영체질을 강화함과 동시에 오랜 과제인 업계의 집약·재편에 연결시킬 생각인 것이다.

처리쿼터철폐는 89년 3월말의 휘발유생산할당폐지, 90년 3월말의 휘발유주유소 건설규제철폐와 함께 석유산업의 규제완화를 지향하였던 87년 6월의

석유심의회의 보고에 담겨져 있다. 다만 시기에 관해서는 '대체로 5년 이내에'라는 애매한 표현에 머물고 있다.

통산성은 업계내에서도 92년도부터의 자유화를 예측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작년의 걸프위기와 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면 금년도에 규제를 중단할 방침.

同성은 6월 6일에 석유정제설비의 증강을 18년만에 인가한 정도로서, 석유산업의 규제완화는 한단계 나아간 것이 된다.

처리쿼터철폐후는 각사가 독자적으로 정제량을 결정, 석유제품판매의 어려움을 덜게 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각사가 증산에 주력, 휘발유등의 박리다매경쟁으로 발전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50년에 원유수입을 외화할당제의 대상으로 지정, 무역자유화의 와중에서 62년에 지정을 철회하였으나 대체조치로서 원유처리쿼터를 도입하는 등, 전후 거의 일관하여 국내의 석유정제량을 행정 관리하에 두어왔다.